



활짝 핀 연꽃 사이로... 25일 광주의 생태공원으로 자리잡은 서구 매월동 전평저수지에 연분홍빛 연꽃들이 만개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집없는 서민 살 곳이 없다

“경제성 없다” 공기업마저 공급 중단...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7000명

### 국민·공공임대도 내년까지 계획 없어

집 없는 서민들이 보증금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광주 지역 영구임대아파트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건설업체는 물론 광주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마저 공급을 중단하면서 서민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도 정체 상태인 재개발·재건축 구역 일부를 서민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주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 지역 내 광주 도시공사 소유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의 대기자는 2816명, LH공사

소유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 대기자는 4148명으로, 모두 6964명에 달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광주 도시공사와 LH공사 등이 각각 지난 93년, 2009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기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기자는 기준 입주자가 이주해야만 아파트가 배정되므로 상당기간 무주택 또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1122가구에 3731명의 거주자가 불문명했다.

광주 도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12~17평)의 경우 보증금이 200만~310만원에 매달 4만~6만2000원,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12~13평)는 보증금이 201만8000원~554만8000원에 매달 4만1420원~7만9060원만 부담하면 돼 서민들이 보증금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장애인인 정모(51)씨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린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다”며 “몸이 불편해 단독주택에서는 살기 어려운데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일반 아파트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외에 국민임대·공공임대 등도 공급이 중단된 것은 마찬가지다. LH공사는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 선운지구에 8.77~17.85평 면적의 국민임대아파트 등을 끝으로 향후 2년 간 국민·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운지구 국민임대의 임대보증금은 규모에 따라 900만~3100만원, 월 임대료는 7만5000~20만원으로, 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이미 저도 얕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층 및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주택수요를 토대로 다양한 면적, 임대료 부담액, 공급주체 등을 정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지역의 수요보다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차원에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택 건설 관련 예산 등 재원 이전과 면밀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한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장관 없는 광주·전남 차관은 8명 ‘기현상’

### 호남관료 “실력은 탁월” 내각 지역차별 반증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현 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차관 및 차관급은 무려 8명이나 포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장·차관 비율의 극단적 불균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25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서구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5개 부처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단 1명도 없다. <광주일보 18일자 2면>

또한, 장관급인 2원(감사원, 국정원), 3실(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특

집관찰), 5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일하다.

반면, 43명에 이르는 차관 및 차관급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 8명이나 포진하는 등 전북까지 포함하면 호남 인맥이 1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것이 정관계의 평가다.

하지만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차관이 많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편중 인사를 가릴 수는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 인사를 들여다 보면 호남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은 오만하고 독단적 인사는 지역감정을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朴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될까

내달 25일 민선 5기 신임 회장단 선출 관심

적임자란 평이 많다.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선 2기 때인 1999년 설립된 뒤 수도권과 영남권 등에서만 회장이 선출된다. 그동안 대부분 한나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맡아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고건 전 서울시장(2기·99년 1월~2002년 6월), 이명박 대통령(전 서울시장 2002년 7월~2006년 6월) 등 서울시장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2006년 7월~2008년 10월), 허남식 부산시장(2008년 10월~현재) 등이 맡아왔다. 이제는 호남권, 민주당 출신이 수장(首長)을 맡을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맹우 울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선진 지방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중앙 정부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natural Factors**  
Natural Factors는 캐나다 내추럴팩터스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심의번호 2112073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익은 사과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판매원 KUKJ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고객지원팀)